

나주나진초, 환경 글쓰기로 이어지는 사랑 가득 텃밭정원 운영

지역 환경단체와 연계, 각 분야의 전문가 지원 나서 생태교육 및 환경 글쓰기 더한 내실있는 체험 프로그램

나주 나진초등학교는 2021년부터 조금 특별한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쌈채소, 고구마, 토마토, 허브 등을 가꾸는 텃밭 정원과 장미, 수국, 국화, 야생화, 키위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한 향기 정원이 어우러지는 사랑 가득한 텃밭 정원이다. 이 곳에서 빗물 저급통, 친환경 방제제, 씨앗공, 팜파티 등 자연과 함께 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작년 교육활동 되돌아보기에에서도 학생, 학부모로부터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교육활동 이기에 2023학년도에는 기후환경 환경교육 과제인 [자연순환 마을학교]을 학교특색으로 정하였다. 또한, 지역 환경단체(탄소중립 실천연대)와 연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지원받아 기존 생태교육에 환경 글쓰기를 더하여 운영함으로써 더 내실있는 체험이 가능

하게 되었다.

첫날인 오늘은 6월에 계획된 팜파티를 목표로 쌈채소와 씨감자, 옥수수, 완두콩, 딸기 모종 등을 학년군별로 식재하였다. 1~2학년 학생들이 원했던 방울토마토는 시기가 맞지 않아 5월에 심기로 했지만 대신 마을에서 딸기 모종을 구해와 심음으로써 아쉬운 마음을 달랠다.

이 작물들이 잘 자라준다면 1~2학년은 방울토마토, 딸기, 쌈채소로 샐러드 만들기, 3~4학년은 감자, 쌈채소로 간식 만들기, 5~6학년은 쌈채소, 콩, 옥수수로 고기를 쓰지 않은 햄버거 만들기 등에 도전한다. 내가 심은 작물을 2달 동안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꾸어 지구를 살리는 먹거리를 만들어 보는 활동에 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텃밭정원 활동을 모두 마치고 교실로 올라

와 고학년 학생들은 오늘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환경 글쓰기에 매진했다. 오늘 심은 작물의 이름 지어주기, 점토로 나의 생각 표현하기, 자연과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시 짓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텃밭활동으로 피곤한 몸이지만 즐겁고 밝은 분위기로 끝까지 자신의 글을 마무리 지으려는 모습이 대견했다.

박효린 학생회장은 "제작년부터 학교 텃밭에서 씨앗공으로 씨앗을 심고 쌈채소와 고구마로 맛탕을 만들어 먹었던 추억이 좋았어요. 올해는 더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오늘 옥수수와 상추, 감자, 콩을 심었지요. 학생회장으로서 후배들과 함께 나누고 마을에도 드릴 계획입니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그리고 함께 마을 교사로 참여한 '자연순환 마을학교' OOO는 "아이들과 함께 작물을 심으며 땅의 소중함을 새삼 더 느끼게 됩니다. 감자 파종시기가 조금 늦어 걱정이었는데 아이들의 정성 어린 손짓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되어 잘 자라 줄 것이라 믿어요. 우리 지역, 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프로그램



을 접하며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었으면 합니다."라며 남다른 소감을 전하였다.

신재성 교장은 "올해 저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생태교육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물 부족으로 힘들어 하고 있으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많이 일어나 소중한 산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우리

땅에서 일군 작물이 얼마만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미래를 살아가야 할 우리 학생들이 땅, 물, 주변 동식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모두 함께 살아가는 지구 정원으로 가꿀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먼저입니다."며 생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여수교육청, '학부모회가 함께하는 2023 여수 학부모회연합회 임원 선출 및 위촉식' 실시

여수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는 지난 13일, 지난 14일에 대회의실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90교 '학부모회가 함께하는 2023 여수 학부모회연합회 임원 선출 및 위촉식'을 실시했다.

노성진 박사(건축학, 도시공학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도시와 건축은 시각화 된 인문학이다'라는 강연을 통해 학부모와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13일 현장투표로 임원 선출을 하였으며, 각 급학교 학부모회장들이 모여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 학부모자치 지원을 위한 연합회장 1명, 권역별 대표 19명을 선출하였다. 14일에는 2023 여수학부모회연합회 권역별 대표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권역별 대표들은 각급학교 학부모회 간 원활한 소통을 돕고, 학부모회가 학교 교육의 협력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이다.

참여한 학부모 김OO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의견 표출 기회를 통해 학부모자치가 주관하는 각종 토론회의 촉진자로서 학부모 간의 긍정적 토론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서금열 교육장은 "민주시민으로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토론문화를 익혀 학부모자치 역량을 갖춘 여수학부모회연합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토론과 소통의 촉진자인 학부모 퍼실리테이터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 기자

광양백운초병설유치원, '자연에 풍덩!' 프로그램 실시

'겨울을 이겨낸 로제트' 주제

광양백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유아들이 마을 속 자연에서 다양한 생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을과 아이들이 하나 되는 '자연에 풍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월 말 숲 샘 마을 선생님과 함께하는 공원 생태놀이를 통해 봄에 만날 수 있는 동식물을 찾아보며 나만의 봄꽃 액자 만들기, 나비 번데기 관찰하기 등을 하며 봄에 한 걸음 다가섰다. 또한 딸기농장 체험을 실시하여 아이들이 직

접 딸기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고 딸기를 따서 먹으며 달콤한 봄을 느꼈다.

이번 지난 13일에 실시한 백운산자연휴양림 숲 체험에서는 숲 해설가 선생님의 간단한 주의사항을 들은 후 '겨울을 이겨낸 로제트'를 주제로 추운 겨울에도 잎이 죽지 않은 채 땅에 빠져 붙어 겨울을 나는 다양한 로제트 식물들을 찾아보았으며, 직접 팔을 펼치고 누워 로제트가 되어 따뜻한 봄 햇살을 느끼며 겨울을 이겨낸 식물들의 지혜를 배웠다.

광양백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앞으로도



마을과 연계한 생태교육을 통해 다양한 기후 환경에서도 로제트처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유아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광양=김현근 기자

완도중앙초,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학생들의 교통안전 위해 경찰서 등 함께 동참



완도중앙초는 최근 등교 시간에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해당 캠페인은 완도경찰서, 교육지원청, 완도군청,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가 함께 학생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함께 동참해주었다.

본교 학생들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이를 위한 홍보물품을 나눠주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정리 등의 캠페인 내용으로 펼쳐졌으며 모두가 참여하며 즐거운 등교시간이 되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